

전북교육청 수업혁신, 광주 예비교사들도 눈길

“에듀테크 도구 활용 수업... 인상깊어”

조선훈 교육학과 교수·학생 등 60여명

전주사대부고 등 도내 4개 학교 수업 참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교육이 광주 예비교사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지난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조선훈 교육학과 교수와 학생 등 60여 명이 전북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전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덕일중학교, 전주온빛중학교, 양현고등학교 등 도내 4개 학교를 방문해 미래교육 수업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교육청의 미래교육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수업혁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수업공개에 나선 학교들은 미래교육이 가능한 우수한 학교 공간을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주제로 예비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사례도 선보였다. 특히 교과별 주제에 맞춰 클래스룸, 패들렛, 멘티미터, 수노 등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조선훈 교수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돕고, 또 학습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업을 공개한 전주대사범대부설고 김용현 교사는 “항상 하는 수업이지만 교실에 꿈을 둔 사범대 학생들이 수업에 공개할 수 있어 너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덕희 조선훈 교육학과장은 “미래교육을 수업에 녹여내고 연구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지속가능한 에듀테크 활용 방안을 교



조선훈 교육학과 교수와 학생 등 60여 명이 전북지역 4개 학교를 방문해 미래교육 수업을 참관했다.

원양성기관인 사범대 교육과정에 접목하고 미래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디지털 선도학교들의 에듀테크 기반 교육 혁신의 모범 사례를 타 지역에

선보인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연수, 수업연구회, 수업공개와 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선생님들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교원들에게 서한문 발송... “교육활동 보장”

“약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일 교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원스톱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마련, 특이민원대응팀 운영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관련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요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즉각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육감은 “약성 민원에는 특이민원대응팀이 앞장서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며, 장학사와 전문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것”이라며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약성 민원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주A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교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지난 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현실 기반 계획 수립 필요”

우석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포럼 성료
전북자치도 수소 패러다임 선도 청사진 제시

우석대학교는 지난 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배우현 전북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축사와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석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생태계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소분야 전문 기술교육 기관 설립 △모빌리티 및 연료전지분야 중심의 신규사업 기획 △수소기업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경제연구단 선임연구원은 “수소산업 시장동향과 지자체의 경쟁성 분석”을 주제로 국내외 수소산업 현황 및 정책을 소개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

를 위해 정부 주도보다는 시장 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실에 기반한 중단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이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우석대학교 글로벌대학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수소산업의 발전과 우석대학교의 선도모델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수소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우석대학교는 수소에너지를 차세대 동력으로 삼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신재생에너지과 SMATEC2024 현장 견학 나서

전주비전대학교 신재생에너지과는 지난 7일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SMATEC2024)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견학은 전주비전대학교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 2.0(3유형) 박효식 사업단장과 주관학교인 신재생에너지과 김해미 학과장을 비롯해 1~2학년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SMATEC2024는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기술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최신 기술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로, 학생들은 전시관 투어,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최신 제품과 기술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참여 기업들의 신기술과 제품 개발 사례를 통해 제조업 분야 내 혁신 동향과 미래 기술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특히, ‘스마트 제조혁신-제조 AX와 SDM’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미래 제조업 분야의 산업방향성과 디지털 기술 접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생 실현

전북자치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8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이종성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역의 우수한 장애인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활발한 교류 및 협력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발굴과 지원 등을 통한 역량개발 및 활동 지원 △향후 각 기관의 업무 범위 확장에 따른 현장 맞춤형 훈련 및 고용 연계 확대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면서 “역량 있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한국어문화교육원 베트남 VIET-ONE 유학원과 협약

전주기전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 7일 베트남의 비엠훈(VietOne) 유학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기전대학 조희천 총장을 비롯해 입학홍보처장, 국제교류원장, 한국어문화교육원장, VietOne 유학원 원장, 부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우수한 유학생 연계를 위해 한국어교육,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에는 현재 어학연수 및 본과 과정에 450여 명의 베트남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장은성 기자

‘작업치료 하모니, 같이의 가치’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제2회 작업치료 학술제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지난 8일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제2회 작업치료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로 다른 학생들이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갖고 협력 및 소통에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에서 ‘작업치료 하모니, 같이의 가치’로 주제를 정했다.

먼저, 국립법무병원 김영옥 작업치료사(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과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가 되는 길: A~Z 까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3~4학년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고, 4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졸업논문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작업치료탐정단: 힌트를 찾아라!’에서 재학생들이 팀을 이뤄 힌트



를 찾고, 이를 조합해 정답을 추리하는 활동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행사는 ‘교수님 토크 콘서트’로 마무리됐다.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하고,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듣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작업치료학과 정운화 학과장은 “이번 학술제를 통해 학과 학생들 간 서로를 이해하고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공동체 의식이 더욱 향상됐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입사지원서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주기전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8일 2024학년도 입사지원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기소개서 작성 및 질문가 컨설팅 과정을 통해 입사 서류전형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취업실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입사지원서 공모전 평가항목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두 가지 큰 항목에 대해 입사지원서 요소 완결성, 희망 직무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 인과관계성 등으로 우수 작성자를 선발했다.

그 결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학생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치위생과 이주원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문적 평가와 컨설팅을 받아 입사지원 준비과정에 대한 객관적 점검 및 입사 희망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구직전략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산학협력처장은 “입사지원서 공모전을 통해 자신감 증진과 취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학생팀, 드론코딩 경진 ‘두각’

개인 이현태 학생 대상·전혜진 학생 동상... ‘단체’ 금상 수상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학생들이 최근 남원에서 열린 ‘2024 METAmobility 드론코딩 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스마트팜학과는 개인전에서 이현태 학생이 대상을, 전혜진 학생이 동상을 차지했다. 또 단체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학부 개인전 30명, 단체전 3인 1조 10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드론을 수동조작이 아닌 코딩을 이용해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율주행으로 다양한 경로와 장애물을 피해 최종 착륙장에 도착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겨뤘다.

각 참가자들은 장애물 코스를 확인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계산해 드론을 코딩한 뒤 무사히 자율비행 미션을 수행하면 획득한 점



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가 결정됐다. 김태곤 전북대 스마트팜학과장은 “최근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부터 드론코딩 대회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열정, 노력, 끈기로 얻어낸 값진 결과들이기에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